말해봅시다

알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jang 3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choarha

격려·비판 할줄아는 지성인 돼야

따사로운 5월도 어느덧 중순을 맞이 하고 있다. 학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5월의 아름다움과 함께 여기 저기 아름다움과 함께 여기 저기 걸려 있는 광주 민주 항쟁에 관련된 플랭 카드나 벽보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심코 지나쳐 가는 학생또 한 볼 수 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데 그중 하나는 학생 운동을 부정적 관점에서 보도해온 대중 매체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학생운동이라면 거부 반응부터 보이는 것 같다.

광주 민주 항쟁은 무관심이라는 말로 일축해 버리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저런 무관심한 태도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들을 지나쳐 버리는 수가 많다. 당구도 치며 술도 마시고 학업에 열중하고 또는 동아리 활동으로 벅찬 날을 보내는 것도 아름다운 캠퍼스 삶이가 되겠지만 그것에다 진실에 대해 알고자하는 열의를 더한다면 또한 아름답지 않을까?

학우들 앞에서 무언가를 외쳐대는 이들에게 저사람는 색깔이 있다는 말등을 하면서 부시해 버리거나 꺼리는 눈길을 가지기보다는 때로는 귀를 기울이면서 힘찬 격려와 함께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기도 하고 스스로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멋진 대학인이 아닐까?

유리병에 갇힌 촛불은 산소가 부족해서 꺼져 버리기 마련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서있는 자리처럼 촛불이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말해 우리 모두가 그 뚜껑을 열어주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 훈 (중문·1)

'두 늙은이가 농새 지을랑께…' 농촌의 현실 확인했던 봄농활

늦은 열시쯤 보름달이 둥그렇게 뜬 깜깜한 한밤에 우리 물리학과 농활대원들은 한적한 2차선 아스팔트 도로위에 발을 디뎠다. 전라북도 고창하고도 오산면 남산이라는, 인가도 그리 많지 않은 곳이었다. 그곳에 내리선 내 첫느낌은 '와아, 낭만적이다!'였고, 숙소인 마을회관까지 걷는 동안에도 줄곧 그랬다.

다음날 새벽 다섯시가 조금 넘어서 우린 밥을 지어서 먹고 조를 나누어서, 데리러 온 마을어른들을 따라 나섰다. 힘들거리는 경운기를 타고 촉촉한 아침공기를 맡으며 들을 지나는 것은 정말 상쾌했다.

그러나 목적지에 닿았을 때 나는 약간 당황했다. 기껏해야 마른 밭에서 뿔뿔은 일이나 하겠지 생각했었는데 무릎까지 차는 질퍽질퍽한 진흙 논에서 폴뿌리를 골라내고 못자리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팔다리를 걷어붙히고 진흙속으로 뛰어드는 동안 나는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아가씨는 게서 잔심부름이나 허지요"라고 주인할머니께서 말씀하신 탓도 있지만, 도무지 그 진흙속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잠시후 나도 조심스레 논으로 들어가 보았다. 발가락 사이로 진흙이 스며들었다. 그리 싫지 않은 느낌이었다.

못자리를 고르고 모판을 나르고, 범씨를 나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점점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나중에는 진흙속에서 발을 빼드는 것조차 힘겨웠다. 모든 일을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것이 비능률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었다면 나이드신 두 분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돌아오는 경운기 속에서 함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아그들이 안왔음 워쩠을 것이당가, 아들, 딸 다 서울서 살고 두 늙은 이가 농새를 지을랑께…"

아직도 몸이 여기저기 쑤시지만 올 여름농활에도 다시 갈 것을 그려본다.

서 은 영 (문리대·물리1)

일문과, 예술제 개최

외국어대 일어일문학과 학생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일문예술제'를 개최한다. 행사내용으로 원어연극부, 풍물패인 '6한가락', 중창단인 '아랑소리'의 공연이 있으며, 서반아어과 락그룹인 'DANZA·JALISCO'가 찬조출연한다. 이 행사는 과내 동아리 활동을 강화하며, 졸업한 동문과 재학생간의 유대강화에 의의가 있다.

외대 문화 예술제

외국어대학 학생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외대 앞 민주광장에서 '외대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5·18광주 민주항쟁 사진전 및 각 과대항 장기자랑을 주 행사로 하며, 반미자주, 통일, 우리학생회, 5월 열사라는 4대주제를 내걸고 개최한다.

사무처, 불용품 접수

서울 캠퍼스 사무처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각 행정 부서를 대상으로 불용품 신고를 접수 받는다.

물품 처분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적기 불용 처리를 행하여 불용비품 관리에 따르는 부서별 애로 사항의 해소를 기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신고 접수는 불용품 신고서 및 비품카드 사본 각 1부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신고에 의한 처리 절차는 먼저 주관부서에서 신고한 불용품 신고내역의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관정을 내리게 된다.

수원, 주소변경공고

수원캠퍼스 교무처는 학사일정 안내 등을 발송하기 위한 주소정정기간을 발표하였다.

제학생들은 오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12일간 각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주소록을 확인하면 된다.

자신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는 확인을, 주소 변경시에는 기존주소 삭제 후 붉은 볼펜으로 기재하면 된다.

산업연구소, 세미나

경영대학원 산업관계연구소는 오는 19일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임금협상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해 실시한 총액 임금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노사 당사자들의 임금인상안의 타당성과 협상과정의 합리성을 학계·실무자들이 공동으로 분석 토론해 바람직한 임금교섭 협상전략을 설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예비군 7백여명 헌혈

지난 11일부터 13일 실시된 93년도 예비군 교육훈련에서 본교 대상자 중 7백16명이 헌혈하였다.

교직원, 대학원, 호텔관문대학, 의료원의 A조와 대학 4학년과 일부 의료원 대상자로 구성된 B조로나누어 실시되었다.

식가공과 가요제

산업대학 식품가공학과는 대동제기간동안 식공과 학생들이 직접만든 막걸리와 빵을 팔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체대농구장에서 축구, 족구, 여자 발야구 등 체육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21일에는 산대앞 광장에서 가요제를 연다.

알림터

교수동정

안진환 교수 방독

【서울캠퍼스】▲남순건(문리대·물리)조교수=6월22일부터 7월25일까지 학회참석및 세미나 발표차 일본 방문 ▲김형석(의대·의학)교수=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학술발표차 태국 방문 ▲안진환(의대·의학)교수=6월6일부터 7월7일까지 학회참석차 독일 방문 ▲최영길(의대·의학)교수=6월9일부터 6월18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 방문 ▲김영성(의대·의학)교수=6월11일부터 6월18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 방문 ▲조병수(의대·의학)부교수=6월12일부터 6월24일까지 학회참석차 이스라엘 방문 ▲홍성언(의대·의학)부교수=6월21일부터 6월26일까지 학회참석차 일본 방문 ▲최영규(의대·의학)부교수=6월21일부터 7월4일까지 학회참석차 스웨덴 방문 ▲신우영(의대·의학)부교수=8월1일부터 10월27일까지 해외연수차 미국 방문 ▲김광정(치대·치의학)부교수=6월8일부터 6월15일까지 학회참석차 영국 방문

분 실

습득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지갑=▲청용(정경대·경제)학생회관 1층로비.

【수원캠퍼스】◇가방=▲서의홍(건축·1)

습 득

분실자 본사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이재우(의대·의학) ▲정석용(약대·약학)

【수원캠퍼스】◇자전거=지난 4월말 엄마 밥집 앞에서.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수원캠퍼스】▲황성욱(불문·1) ▲김우경(불문·2) ▲장미정(중문·4) ▲윤정주(행정·2) ▲장미정(중문·4) ▲윤정주(행정·2) ▲이용훈(경영·4) ▲전윤영(무역·2) ▲권세동(회계·2) ▲김미란(국제관계·2) ▲김희준(수학·1) ▲김동호(환경·2) ▲이승준(환경) ▲김경우(유전·2) ▲이승재(유전·4) ▲이상원(유전·4) ▲신우석(우주·3) ▲이정훈(기계·1) ▲임홍병(기계·3) ▲임영국(기계·3) ▲김남용(전자·2) ▲윤석현(전자·2) ▲박성규(전자·2) ▲한백견(전자·3) ▲김대영(화공·1) ▲최경만(화공) ▲이지영(건축·2) ▲조용진(건축·2) ▲고봉수(건축·4) ▲차승준(산공·3) ▲이재일(산공) ▲윤석현(전산·2) ▲박민수(전산·2) ▲임채경(전산·4) ▲강준영(임학) ▲장영진(임학·4) ▲김원수(식공·4) ▲황수영(조경·4) ▲김극진(도예) ▲최상현(도예·2) ▲김정아(도예·4) ▲주성일(도예·4) ▲형대웅(산디·2) ▲조성아(총학) ▲파대표(유전·1,2) ▲강영미(self)

동문모임

경주고 동문회

【수원캠퍼스】▲제주 대기고 동문회=오는 22일 오전 10시 명지대 운동장에서 명재대 동문과 연합체육대회 개최 ▲선인·인화동문회=오는 21일 5시반 외대앞 ▲경상사대부고 삼현여고=오는 20일 5시반 공대휴게실 ▲경주고=오는 18일 7시50분 신갈직행버스 타는 곳 ▲화일·예일동문회=오는 18일 10시 도봉산역 가린 출구 ▲진해야유회=오는 18일 11시 원천유원지 버스정류장 ▲상문고·은광여고동문회=오는 17일 5시 외대앞 ▲부산고·이사벨여고=오는 20일 5시30분 공대휴게실.

물질만능주의의 표본 MLM

은밀히 활동, 규제 요청돼

공동체 사회속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간에 양면성을 띈 구조적 모순을 내포한다.

순수해야할 대학생들에게 물질만능주의를 심어주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기적 행태들이 암암리에 활개를 치며 비가시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바로 다단계 판매방식(MLM:multi level morketing)인데 정신건강을 해치며 급기야 가치관의 혼란까지 초래하는데 그들의 주장이 정당한지는 몰라도 합법적이기까지 할까? 우선, 다단계 판매방식은 기존의 피라미드 판매방식과는 여러차원에서 다르다고 하는데 인적대면관계 즉, 친분을 이용한 판매와 그 실적으로 직위가 오르고 수당도 증가한다는 점은 피라미드식과 어떤 점에서 다르겠는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불황극복에 각고의 노력을 하는 이 시점에 곳곳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뛰어야 할 젊은이들이 비생산적이고 인적관매망을 통한 고마진을 획득하는 다단계 판매방식에 심취해 젊음을 보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다단계 판매방식에 빠져들어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혼탁한 사회를 깨끗히 정화해가는 요즘에 퇴행적인 다단계 판매방식업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한다.

김 영 성

(사회대·행정4)

오는 20일 응원대제전 개최

'경희의 하나됨'위해 노력할터

제6회 응원대제전을 준비하게된 제회 경희응원단(KHUR-LA)은 어느정도 학우들 속에서 숨쉬고 있는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응원단에 대한 인지도 분석과 응원대제전을 소개하면서 학우들과 함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체학우의 약 10%(8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지도 분석에서는 명예응원단 제도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응원단의 명칭인 KHUR-LA는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고 학교직속단체로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한편, 제6회 경희응원대제전이 젊음의 열기를 발산시키고 대학응원문화의 창달과 대학문화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오는 20일 오후 2시 체과대앞 혁명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창단 12년째를 맞아하며 어느덧 제6회 응원대제전을 준비하게 되었고 야외공연으로는 두번째로 좀더 발전되고 변화된 응원단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동작을 만들고 연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약6~7개교와의 교류전도 함께 이루어지며 경희 수원 배움터의 위상과 학우들의 마음에 애교심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 일정의 불확실성과 잦은 변동으로 인해 연예인 섭외와 타학교 초청이 학우들에게 알려진 것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희 응원단은 학우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와 '경희의 하나됨을 위하여'의 선봉에 서겠다는 힘찬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응원단, 노력하는 응원단이 되고자 한다.

김 병 선

(수원, 경희응원단장)

朔風

역사의 복원은 '정도(正道)'이다

취임한지 채 석달이 못되는 김영삼 정부는 취임 초부터 개혁의 기치를 걸고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발빠른 사정활동으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고 있다.

자고나면 매일이다시피 터져나오는 썩고 젊은 구정권의 비리와 치부들로 하여 신문이 소설보다 재미있고 TV 뉴스가 드라마보다 인기가 있을 정도로 국민적 동감을 얻고 있는 사정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한탄하듯이 누구하나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근간의 개혁을 위한 사정활동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전시적이고 폭로적 성격인 가시적 불법행위에만 주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보다 진정한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의 국가와 사회가 왜 이토록 황폐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도덕적 검증과 역사적 평가가 간과되거나 생략되어서는 안된다.

해방이후 온 국민의 숙원이었던 친일파에 대한 척결이 이승만 독재정권의 비호로 유야무야 된 이후 곧바로 이어진 군사정권 30여년-. 그동안 정권탈취의 불법성을 은폐하고 정권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군사정권의 압폭적 탄압에 의하여 역사적 검증이나 객관적 평가가 유보되어, 혹은 실종되고, 혹은 각색되고, 혹은 굴절된 역사적 사실들이 이제는 본래의 모습 그대로 국민앞에 밝혀져 국가적 동의로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것이야말로 해방이후 최초로 정통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을 자랑하는 문민정부가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 마룰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래야만 매국노의 자손이 매국의 대가를 되찾겠다고 국민을 깔보고 나서는 후안무치나, 권력의 핵심에 안주하여 수십, 수백억의 축재를 하고서도 '토사구팽'이니 '격화소양'이니 하며 어줍잖게 문자를 희롱하는 따위의 수작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몇 사람의 독직행위나 부정한 축재를 치죄하는 데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자칫 일파청 '부패사냥'에 그칠 위험성이 있다.

역대 정권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에 대한 역사적 평가, 그리고 그 권력의 주위에 기생하여 꼭학을 전담해 온 아세지도의 부패한 행적에 대한 도덕적 사정을 유보해 놓고서는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동반한 개혁의 성취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이야말로 오늘의 민주화를 위하여 길고 암울한 시대를 흔들리지 않고 곧고 바르게 걸어 온 상처받은 양심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일 것이다.

12.12사태에 대한 총리의 실언으로 정가가 시끄럽다.

비단 12.12사태 뿐만이 아니라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모든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사정이 이제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 것이 진정한 개혁을 성취하는 길이요, 제2, 제3의 '실언'과 '망언'을 예방하는 길이다.

〈張〉

弱冠須讀五車書

약관수독오거서(弱冠須讀五車書)는
知的호기심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젊은 시절에는 다섯 수레에 실을 만한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리포터 자료서적, 관심있는 사회과학 서적,
그리고, 교양 필독서 등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접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먼저 배운 선배님이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이것저것 배울 것도 많은
대학에서 우리는 뭐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책속에 길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의 수많은 책들을 그냥 썩여 두지 말고
참 활용하여 모두 내것으로 만들어야 겠습니다.
자! 지금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가꿀 수 있는 기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대학주보사